

여수시, 크루즈·철도 관광객 유치 총력

올 상반기 크루즈 4차례 입항...사후면세점 연계 홍보 강화
철도공사와 업무 협약 맺고 다양한 철도 할인상품도 마련

3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달성한 여수시가 국제 크루즈선과 철도 여행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4차례에 걸쳐 크루즈선이 여수엑스포 '크루즈항'에 입항한다.

상반기 여수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은 일본 피스보트사의 '오션드림호', 미국 씨본 크루즈사의 '씨본 서전', 아시아크루즈협회의 소속 스타크루즈사의 '슈퍼스타 아쿠아리우스' 등이다. 오션드림호와 씨본 서전은 각 1항차, 슈퍼스타 아쿠아리우스는 2항차 운항한다.

◇상반기에만 4차례 크루즈선 입항=특히 사드사태로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문제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이후 해빙모드로 접어들면서 중국 단체관광도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제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다. 소비성향이 강한 부유층 관광객이 주로 크루즈 관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한해 국내 크루즈 여객 지출규모는 총 1억 1800만달러(1298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국내 크루즈 관광객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경제유발효과도 8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관광 큰손'으로 통하는 중국인 크루즈선 관광객 1인당 지출 비용이 11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주·부산·인천 등 국내 지자체들이 앞 다퉈 중국 크루즈선 유치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4년 여수항 확장공사로 광양항을 통해 입항한 중국 크루즈 관광객 1만 6000명이 5일 동안 여수·순천·곡성 등지에서 쓰고 간 돈만 9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드 파장으로 지난해 중국 정부가 한국방문 금지령을 내리면서 여수를 방문하는 중국 크루즈 관광 일정이 전면 취소돼 지난해 일본선사의 퍼시픽 비너스호, 오션드림호 등 2항차만 여수에 입항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일본, 동남아 등으로 유치활동 범위를 넓히는 등 발 빠르게 대처, 지난해 10월 아시아크루즈협회에 기항 희망도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슈퍼스타 아쿠아리우스 2항차 기항을 확정했다.

시는 최근 단체관광에서 개별자유여행으로 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팸투어와 SNS를 이용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또 크루즈선 방문 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쇼핑' 해결을 위해 지난 7월까지 전남 로상가에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81곳의 사후면세점을 지정했다.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는 지난해 10월 23일 중국 파워블로거 팸투어부더 투어 프로그램에 포함해 홍보하고 있다.

◇철도 관광 상품, 전국 관광객 '손짓'=여수시는 올해 다양한 철도관광 할인상품을 마련해 전국의 내일러들을 유혹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 여수시청에서 한국철도공사 서울·전남본부와 여수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병완 여수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과 차승훈 여수엑스포역장 등 양 기관의 책임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와 전남본부는 여수 관광상품과 연계한 철도 테마상품을 운영하고 시는 숙박비, 버스 임차료,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본부는 역사문화 철도관광상품인



지난해 7월 여수엑스포 크루즈항에 입항한 일본 피스보트사의 오션드림호.



지난달 31일 여수시청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실에서 김병완 단장(왼쪽 세 번째)과 차승훈 여수엑스포역장(왼쪽 네 번째)이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항로맨스'·'내 품안의 여수', 전남본부는 여수 관광콘텐츠를 연계한 '여수밤바다투어'·'레일시티투어여수'를 운영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내일로 여행객뿐 아니라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 등 청춘 할인티켓 구매 여행객에게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또 내일러 댄스 페스티벌, SNS 내일러 여행 후기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

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크루즈선 입항 유치와 함께 크루즈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내일러뿐 아니라 청년할인티켓 구매자에게도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많은 젊은이들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최저임금 조기 정착 위해 위반사례 점검

여수고용청 설 앞두고 실시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설 앞두고 올 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3월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여수고용지청은 최근 일부 사업자가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자 동의 없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 편법·부당한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중 점검 대상은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아파트관리업과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운영업, 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이다.

여수고용지청은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 미달로 적발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형사입건 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2018년 최저임금액(시급 7530원)을 위반해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전면교체

납 기준치 초과한 3곳

여수시가 납 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공공체육시설의 우레탄 트랙을 전면 교체한다.

교체대상은 전남경기장, 망마경기장, 망마육상보조경기장 등 3곳이다. 이곳 시설은 지난 2016년 유해물질 검사 결과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총 31억 원을 투입해 올해 10월까지 유해물질 없는 우레탄 트랙으로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비의 절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한다.

상반기에 교체되는 망마경기장과 망마육상보조경기장은 2월부터 6월까지 이용이 제한된다. 전남경기장 시설은 하반기에 일정이 잡혀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해경교육원 복지시설, 주민에 개방 호응



오전동 지역 어르신들이 해양경찰교육원 건강관리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윤성현)이 교육원 복지시설을 인접한 오전동 주민에 개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최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한 휴식과 건강을 유지토록 돕기 위해 2016년부터 교육원내 건강관리실, 목욕탕, 체력단련실, 미용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2016년 80차례에 걸쳐 808명이 이용했으며, 지난해는 145회로 늘려 1746명이 교원내 다양한 복지시설을 찾았다.

지역 주민들은 목욕탕과 건강관리실을 주로 찾으면서 첨단 시설에서 여유로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해경교육원 측은 바쁜 업무 중에도 매주 2차례씩 마을과 교육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행하며 주민들이 손쉽게 복지시설을 찾도록 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해경교육원은 정부의 국가시설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15년 말 여수로 이전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전국 아름다운 등대 4곳 가상현실 통해 만나세요

여수해수청 무료체험 제공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독도등대와 같이 도서 지역에 위치해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전국의 아름다운 등대 4곳을 여수 오동도등대 홍보관에서 가상현실을 통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은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의 환경에서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사용자에게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IT기술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다.

오동도등대 VR 체험시설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적인 독도등대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접근이 어려운 마라도등대, 어저도등대, 거문도등대를 선정해 등대와

주변 풍광을 가보지 않고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가상체험 영상에서는 독도등대의 야간 풍경을 볼 수 있고, 공간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순간 이동기능을 접목해 더욱 넓은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하다. 또 360도 VR 영상은 물론 음향효과와 더불어 설명까지 곁들였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거문도등대

강력 추천합니다. 010-3605-5000

※ 구례, 그랜드 호텔 매매 ※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2
- 지리산온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세미나실/사무실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정도
- 감정가 / 시세 - 20억 매매 - 15억(조정가)

※ 나주, 2층주택(전원주택/별장) ※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2월 중순 입주가능
- 시세 - 1억 매매 - 7200만원